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2014년도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인보도와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공인 관련 판결과 미국, 독일에서의 공인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공인의 개념과 공인보도에서의 인격권 침해 요건 등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며, 다만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인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권오승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상세내용 11면 참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용상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의견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4일 국회에서 2014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강한 전파력과 확산성을 지닌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기사의 전파, 검색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바일 미디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